

지역 혁신기술 글로벌 진출 본격화

전북대, CES 2026서 '단체관' 열고 대학 보유 우수기술 공개... RISE 기반 산학연 협력 성과 집약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CT·혁신 전시회 CES 2026에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기반으로 한 '전북대학교 단체관'을 공식 개관하고, 지역 혁신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번 단체관 개관은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RISE 사업의 성과를 국제무대에 집약적으로 선보이기 위한 것으로,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 기업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기반 글로벌 진출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대는 CES 2026이 열리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Venetian EXPO Hall G에 전시관을 운영하며, 차세대 통신, 디지털 헬스, 공간·모빌리티 인공지능, 스마트 디스플레이 등 CES 핵심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6개 유망 기술·제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RISE사업단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전시 참가 연구진과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시 참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이번 CES 2026에서는 전북대 전자공학부 조형기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휴대형 공간정보 취득 디바이스 '스냅스페이스(SnapSpace)'가 Construction & Industrial Tech 부문에서, 전북대병원 혁신형의료기기센터 김기욱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SenseFEEL'이 Digital Health 부문에서 각각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는 RISE 사업을 통해 지원된 대학·대학병원·지역 기업 협력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도 기술력과 사업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SenseFEEL은 현실 자극과 가상 자극



전북대학교가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CT·혁신 전시회 CES 2026에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기반으로 한 '전북대학교 단체관'을 공식 개관한 가운데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통증 진단 솔루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의료기기 혁신성과 임상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스냅스페이스는 초경량·저전력 공간 매핑 기술을 기반으로 건설·인전·로봇 분야에서의 산업적 확장성이 높게 평가됐다.

전북대 단체관에는 △5G/6G 밀리미터파 ERP 향상 AP 모듈(Senswave) △경부 착용형 음성 질량 진단 웨어러블 기기(엔사이드 주식회사) △카메라 기반 경량 매핑 및 내비게이션 디바이스(SnapSpace) △하이브리드 통증 진단 솔루션(SenseFEEL) △실시간 주행 환

경 인식과 운전자 건강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능형 모빌리티 시스템(와이노베이트) △미디어글라스를 활용한 투명전자 현수막(아이코너이트) 등이 전시된다. 각 기술은 실증 가능성과 산업 확장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어와 투자자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단체관은 단순 기술 전시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실증·사업화·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RISE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전북대는 CES 2026 기간 동안 글로벌 기업과 투자기

관,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공동 연구, 기술 이전, 해외 시장 진출 등 후속 연계 성과 창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순정민 전북대 RISE사업단장(산학협력단장)은 "이번 CES 2026 단체관 개관과 혁신상 수상은 RISE 사업을 통해 축적된 대학과 대학병원, 지역 기업의 혁신 역량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반 기술이 세계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중3 골든타임 프로젝트' 제시

'교육감 출마' 황호진 전 부교육감...진로·진학 체계화

6월 3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중3 골든타임 진로·진학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3이 일 반계고와 특성화고 선택은 물론 이후 대입·취업 경로를 좌우하는 핵심 시기라는 점에 주목해 이 시기에 맞춤형 정보 제공과 상담을 강화해 진로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중3 과정에 진로·진학 설계 시간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흥미·적성검사 실시, 대입·취업 정보 제공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고교 진학 이전에 자신의 진로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또 중3 이후 고교 1~3학년 전 과

정에 걸친 단계별 진로·진학 지원 체계도 함께 제시했다. 고3 단계에서는 대입 원서 상담을 중심으로 한 집중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전북대입진학지원단, 진로진학센터 관계자, 대학 입학사정관, 대입 전문 컨설턴트, 취업 담당 인력 등이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황 전 부교육감은 "중3 골든타임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고교를 선택하는 일을 줄이고, 체계적인 진로 관리로 진로 성숙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대입과 취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전 부교육감은 중등교육사 자격을 가진 교육행정고시 출신으로 교육부 학교정책실·고등교육실, 대통령실 등에서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했으며, 주CEO대한민국대표부에서 활동한 국제 교육 정책 전문가다. 이번이 2018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교육감 선거 도전이다.

/뉴시스

오늘 고창-EBS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식

고창 창의예술미래공간서... 지역 중학생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8일 고창-EBS 자기주도학습센터개소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 선발된 고창 관내 중학교 2~3학년 27명과 학부모, 고창교육지원청 및 EBS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교육 혁신의 합찬 출발을 축하한다.

고창 창의예술미래공간(고창읍 보릿골로 35) 3층에 자리잡은 '고창-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고창교육지원청과 EBS가 협력해 설립됐다.

센터 1기 학생으로 선발된 27명은 앞으로 8개월간 EBS의 우수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와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AI 코치웨어), 전문 학습 코디네이터의 1:1 맞춤 관리를 받게 된다.

학습 코디네이터는 학생들의 학습 계획 수립, 진도 관리, 학습 습관 형성, 진로 상담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진정한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개소식에 이어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센터 운영 방안과 규칙, 학습 프로그램 활용법을 안내해 학생들이 센터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숙경 교육장은 "앞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발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EBS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국 교육장들, '학생 마음건강 지원·교권 보호' 논의

전국교육장협의회 정기총회, 오늘까지 개최... 가정교육·학부모 역할 재정립도 모색

전국교육장협의회는 7일 2026년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해 구성된 협의체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176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부터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학생 안전과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 교권 및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방안을 주제로 시·도별 교육지원

청의 사례 발표와 정책 제안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가정의 돌봄·교육 기능이 약화함에 따라 교육장들은 가정교육 기능 회복, 학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 교육 회복 등도 모색하고 있다.

전국 교육장들은 학생과 교원의 어려움이 개별 학교의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과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도 요청했다.

주요 제안에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뒷받침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의 안정성 강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안전 대응 협력 △학 교폭력 및 갈등 시도에 대한 회복 중심 접근 확대 등이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총회에 참석해 교육장들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 학생 맞춤형지원 체계 구축 등 교육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과 학교 현

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로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학생맞춤형지원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미라 전국교육장협의회장(서울 남부교육장)은 "이번 동계 워크숍은 마음건강 회복을 넘어 학교·가정·지역이 다시 손을 잡고 교육에 대한 국가적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교육지원청이 현장과 사회를 연결하는 책임 있는 주체로서 교육 회복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겨울방학 학습 공백 최소화·학습 역량은 강화

전북교육청,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위권 학생까지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습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부터 중위권 학생까지 아우르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겨울방학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학력 보강 강화 △중위권 학생의 학습 역량 제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 더 많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주교육대학교와 연계한 겨울방학 학력신장 캠프를 오는 12~16일까지, 2막 3일 과정으로 2회에 걸쳐 진행한다.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90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겨울방학에는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뿐만 아니라 중위권 학생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학습 수준에 따른 지원에 중점을 뒀다. 예비교원과 현직 교사로 구성된 강

사진이 체계적인 학습 지도를 제공하며, 학생 개별 수준에 따라 보충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각 학교에서는 겨울방학 기간 학습도와 계절학기 등을 운영해 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지원을 제공한다.

도내 133개 초등학교에서 총 654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교별 여건과 학생 특성을 반영한 교과보충 중심의 학습지원이 이루어지며, 다층 학습으로의 원활한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지역교육지원청 학력지원센터에서도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학습 보충과 학부모 상담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한다.

전주에서는 10개교를 대상으로 약 20일간 총 13회에 걸쳐 학습코칭 캠프를 운영하며 6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1:1 학습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110명에

게 맞춤형 학습 상담을 제공한다. 완주는 약 8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도란도란 학습 상담'과 '학습진로캠프'를 운영해 학습 보충과 진로·학습 상담을 병행 지원한다.

진안과 무주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와 학력지원센터가 협력해 1:1 교과 보충 수업을, 장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글 지도 및 문해력 향상 방법 연수를 총 3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최재일 유초특목수교육과장은 "방학은 학습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책임지는 맞춤형 학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우석대, 주요 보직인사 단행

전용덕 대학일자리본부장 등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1월 1일자로 학생취업처장 직무대리 겸 대학일자리본부장에 전용덕(한약학과·사진) 교수를 임명하는 등 일부 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전용덕 학생취업처장 직무대리는 원광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우석대학교에는 2020년 부임해 한약학과과장 RLS지원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김성은(간호학과) 교수가 간호대학장에, 정진자(특수교육과) 교수가 사범대학장에, 육태환(한의학) 교수가 한의과대학장에 임명됐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대학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생 지원 체계 고도화에 더 힘을 것"이라며 "각 보직자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학 발전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원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온라인 기반 AI 활용 공통 기초교육 운영

국립군산대 RISE사업단, 도내 고교생·청년·외국인 등 대상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은 7일 전북특별자치도 내 고등학생, 대학(원)생, 청년, 외국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AI 활용 공통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AI에 대한 기초 이해를 바탕으로 구직 준비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2026년 1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되며, 총 4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국립군산대 RISE사업단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AI 활용 공통 기초교육 프로그램은 총 4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AI 기본 개념과 생활 속 활용법 △AI를 활용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 △AI를 활용한 직무 탐색과 진로 설계 △AI 활용 발표자료 및 포트폴리오 제작 등으로 구성돼 참여자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본 프로그램은 홈페이지(https://www.ksuniv.ac.kr)에서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학습 참여도가 높은 수료자에

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도 제공된다.

한편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국립군산대 글로벌대학30 대학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교육청,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도 지방보조금(민간보조) 지원사업' 공모를 21일 오후 6시까지 접수받는다.

올해 공모 분야는 △경제교육 △독서토론 교육활동 지원 △예술활동 지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환경교육 지원 △민주시민교육 지원 등으로 총 예산 규모는 15억 원 내이다.

지원 대상은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교육청보조금'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